

예배의 순서

1) 니얏(의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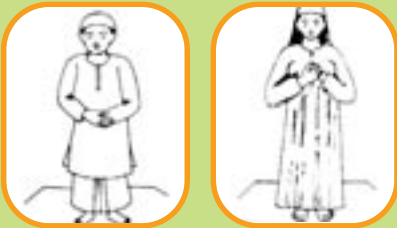
어떤 예배를 몇 라카트(횟수) 올립니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다. 언제나 고개를 약간 숙임.

2) 따끄비르 따흐리마 (거의)



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의향의 표시로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컛볼에 닿도록 올림과 동시에 다음을 소리내어 외운다. “알라 후 아끄바르(알라는 위대하시도다)”. 이때 시선은 절을 할 때 코와 이마가 닿을 곳을 내려다본다. 이때 여자는 가슴위에서 양손을 벌리며 “알라 후 아끄바르(알라는 위대하시도다)” 를 외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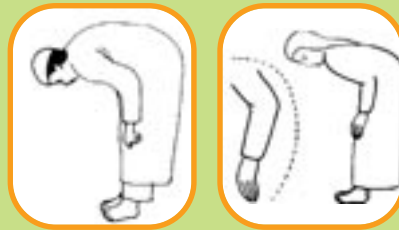
3) 끼얌(팔장을 킴)



손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에서 오른손을 왼손위에 포개어 배꼽위에 둔다. 여자는 좀 더 위로 올려 가슴쪽에 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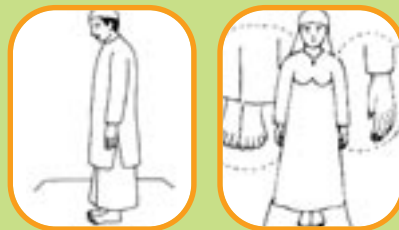
는데 팔을 겨드랑이에서 벌리지 않는다. 이런 자세에서 꾸란등을 외운다.

4) 루꾸 (반절)



예배자는 “알라 후 아끄바르(알라는 위대하시도다)” 를 외우며 양손바닥이 무릎에 닿도록 상반신을 구부린다. 여자는 약간 구부린다. 구부린 자세로 다음을 약 3회 속으로 암송한다. “쑤브하나 랍비얏 아잠 위대하신 알라! 거룩하신 주님에게 영광이 있으시기를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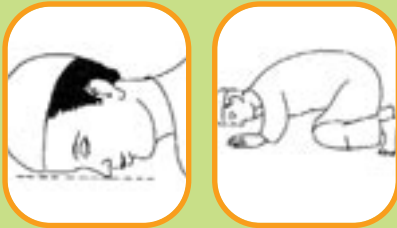
5) 꾸아마(허리를 펴 일어섬)



구부린 자세로부터 다음 구절을 외우며 허리를 편다. “쎄미알라 후리만 하미다(알라께서는 그를 위한 찬미를 들으시도다)” 하면 곧 이어서 “랍바나 라 칼 함두(오, 주님이시어! 모든 찬미는 당신에게만 하나이다)” 를 소리내면서 바로 선다. 이맘(예배 인도자)이 예배를 인도할 때

이맘이 “찌미알라 후리만 하미다(알라께서는 그를 위한 찬미를 들으시도다)” 하면 다른 예배자들은 곧 이어서 “랍바나 라 칼 함두(오, 주님이시여! 모든 찬미는 당신에게만 하나이다)” 를 소리내면서 바로 선다.

6) 짜즈다(엎드려 절함)



“알라후 아끄바르(알라는 위대하시도다)” 라는 소리를 외우며 엎드려 첫 번째 절을 하는데 이마, 코, (여자는 양팔가지), 양발가락, 양무릎을 바닥에 대어서 “쑤브하나 랍비알 아알라지그하신 주님에게 영광이 있으시기를” (3번)을 속으로 외운 후 “알라후 아끄바르(알라는 위대하시도다)” 라고 하여 앉는다.

7) 잘사 (앉음)



“알라후 아끄바르(알라는 위대하시도다)” 를 외우며 두 번째 절을 하기 위해 허리를 펴 공손히 앉는다. 이때 오른발은 세우며 왼발을 뉘여 자세를 낮게 한다. (단)여자는 오른발을 세우지 않고 양발을 뉘여 자연스럽게 앉는다.

두 번째 절은 첫 번째절의 요령과 동일하되 두 번째 절이 끝나면 다음을 외우며 일어선다. “알라후 아끄바르(알라는 위대하시도다)”

*한번 엎드리면 언제나 절(사즈다)을 두번하고 (제2사즈다까지) 일어서게 되는데 여기까지를 제일 “라카트(횃

수)” 라고 한다.

*제2 라카트도 위와 같은 동작과 순서로 하는 데 제2 라카트의 두번째 앉은 자세에서 따샤-후드(따히얄두아)를 외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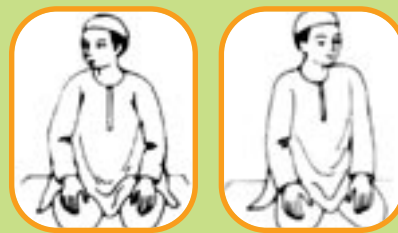
8) 따샤-후드

모든 예배는 2 라카트가 기본이 되므로 2 라카트의 두 번의 절이 끝나면 앉은 자세로 “따샤-후드”를 암송한다. 이때 선언시 (아슈하두 알라...부분)에는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세운다.

(1)제2 라카트 뿐인 예배시는 이어서 “앗살라투 알안나비” 를 외우되

(2)제3 라카트 이상 있는 예배시는 마지막 라카트 다음에 앗살라투 알안나비 등을 외운다.

9) 쌀람



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“앗살라무 알라이쿰 와라흐마풀라알라의 평화와 자비가 당신에게 깃드시기를” 를 소리내어 외우고 다시 왼쪽으로 한번 더 한다 이때 눈은 어깨를 본다. 이로써 2 라카트 기본 예배가 끝난다.

10) 두아(기도)



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한다. 이때 예배자가 양손을 올려 기도한다. 기도는 누구나 느끼는 영감이며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.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감정, 욕망, 슬픔의 진실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.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,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분께 도움을 구한다.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창조주께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은 가장 가까운 친구나 친척에게 할 수 있는 비밀 훨씬 이상의 것이다. 기도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며, 밤낮으로 우리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분의 도움과 희망을 갖게 된다. 기도는 우리의 종교와 정신적 자아에 꼭 필요한 생혈(生血)이라고 할 수 있겠다.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아마도 깊은 상심에 빠져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압도당해 버릴지도 모른다.

예배가 끝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도해도 된다.

“랍바나~아~피나~핏둔야~하싸나, 와필 아키라피 하싸나, 와끼나~아다~반나~르.

(오, 주님이시여!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제게 은총을 베푸시고 불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)

랍바나~라~뚜지구 꼴루~바나~, 바아다 이드 하다 이따나~, 와하블라나~밀라둔까 라흐마탄 인나까 안팔 와하~브.

(오, 주님이시여! 당신께서 저를 인도하신 후에 제마음이 믿음으로부터 이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, 진실로 당신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나니)

“랍바나~잘람나~안 쫓싸~, 와일람 따그피 룰라나~와따르함나~, 라나꾸~난나 미날카~씨란.”

(오, 알라, 제 스스로 과오를 범했나이다, 만일 당신께서 제게 자비와 관용을 베푸지 않으신다면 진실로 저는 자멸할 것이옵니다.)